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장석주 시인

요즘 기분이 나아진 것은 순전히 쾌청한 가을 날씨 덕분이다. 보은성이 좋은 수면 양말을 신고 무명 이불을 덮고 잠드는 게 좋다. 새벽에 눈 뜨면 침대 한쪽에서 고양이 꼬리를 동그랗게 말고 잠든 게 보인다. 고양이 등을 쓰다듬으면 고양이는 잠결에도 기분이 좋아 골골 거린다. 가을은 먼 곳의 그리움이 속절없이 깊어진다. 상강 무렵 맑고 건조한 햇빛 아래 구절초 꽃은 피어 흔들린다. 먼 길 떠나는 자와 먼 길에서 돌아오는 자의 걸음이 우연인 듯 같아지는 계절이다.

소규모 살림이 나아질 기미는 희박하지만 견디며 살만 하다. 가끔 책을 덮은 뒤 강가에 나가 모래와 물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돌아온다. 자주 내가 누구인가를 묻는다. 낱씨의 독재 아래서 구두는 낡고 양말엔 구멍이 난다. 낡는 게 죄가 아니라면 무엇일까? 내 안에는 감정과 욕망이 소용돌이친다. 삶을 생산하는 동력이라면 동시에 극단으로 흐를 때 해악이 되는 이것은 나를 빛는 중요 성분 중 일부다. 나는 이것들에 휘둘리며 고투하는 존재이다.

종교칼럼



최현열 광주 순교회 담임목사

“관리사무소에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첨단도서관에서 책 가지 나눔의 날 행사를 하오니 재밌게 읽은 책을 다른 책과 바꿔서 독서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관리소장님의 목소리가 거실 스피커를 통해 들렸다. 집 근처에 있는 도서관에서 가을을 맞이하여 좋은 행사를 하는가 보다 생각하며 구경이라도 가 볼까 하는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벌써 ‘독서의 계절 가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날 평소에도 관심이 있었던 책 네 권을 온라인으로 주문해서 받았다. 안 먹어도 배부르다라는 말이 있듯이 새 책을 보면 어쩔 이랑게도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다. 아직도 책을 구입하는 내 자신에 대해 뿌듯한 생각마저 드는 것은 왜일까. 몇 주 전 지인의 사무실에 들렀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책장에 꽂혀 있는 수많은 책들이었다. 하나같이 두껍고 어려워 보이고 수준 있어 보이는 책들이었다. 나의 서재에는 다양한 종류의 책들이 이것저것 두서없이 꽂혀 있는데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최근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격주로 두 군데 주간보호

기고



이중섭 소설가

“당신도 하영이 문제만 해결되면 저렇게 살아.” 아내가 TV를 보면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여자 탤런트가 아담한 암자의 비구승을 찾아가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다.

“저런 조그만 집에서 늘어지게 쉬고 싶다.” 아내는 화면 속 암자를 부러운 듯이 바라보았다. 지난 사흘 초파일에 방송했던 다큐멘터리였다. 아내의 어깨는 항상 축 처져 있었다.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딸 하영의 얘기가 나오면 우리 부부는 말이 줄어들었다. 갈수록 혼자보다 두 사람의 삶이, 두 사람보다 세 사람의 삶이 버겁게 느껴졌다. 겨울을 지내고 봄을 맞는 암자의 풍경이 파스해 보였다. 암자는 딱 그 산의 모습처럼 풍경에 충실했다. 계속해서 무소유를 실천한 스님과 수목장 얘기가 흘러나왔다.

“하영이 살아 있을 때까지는 절대 따로 살면 안 돼. 그 후에는 각자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좋아.” 아내는 눈을 떴지 않은 채 계속 혼잣말을 했다. 딸의 장애 지속 기간을 우리가 죽기 전에 한정하는 모양이였

삶이라는 기적

문득 전해린을 떠올린다. 난방용 연료로 연탄을 태울 때 생긴 일산화탄소가 농밀하게 떠도는 서울의 탁한 공기를 들이마시면서도 독일 뮌헨의 가스등과 안개를 그리워하던 독문학도 전해린은 ‘아무튼 낯익은 곳이 아닌 다른 곳, 모르는 곳에 존재하고 싶은 욕구가 항상 나에게 있다’고 썼다. 먼 곳을 그리워할! 인간이 저 너머를 꿈꾸는 것은 발 딛고 사는 지금의 현실이 낙원이 아니라 고통과 불행을 낳는 자리라는 부정적 인식에서 시작한다. 1960년대의 젊은 지식인 전해린은 제 조국의 가난한 현실과 척박한 지적 토양에 진절머리를 치며 저 서구의 나라를 꿈꾸었다.

먼 곳을 그리워 함은 우리 안에서 작동하는 본성이고, 더 나은 삶을 향한 욕망이다. 모르는 곳에서 삶을 꾸리고 싶다는 소망이 가없는 꿈일지라도 그 달콤함에서 깨고 싶지는 않았을 테다. 이 마음의 바탕은 살아 보지 못한 장소에 대한 동경, 먼 곳을 향한 노스탤지어, 자유에 대한 갈망이다. 이 마음을 철부지의 호사 취미이자 향서 취향이라고 몰아세우는 것은 가혹한 일이다. 독일 유학에서 돌아온 전해린은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독문학 책들을 번역하다가 돌연 이승의 삶과 작별한다. 그것은 너무나 급작스러운 일어서 사회에 꽤 큰 파장을 남겼다.

생활에 너무 근접해서 사는 자에게 삶의 비루는 더 잘 보인다. 삶의 근경에 붙박여 살 때 우리 뇌는 더 비판으로 기운다. 별들을 바라보며 걷는 자는 필경 진창에 빠질 위험을 안고 있지만 우리는 마음의 근심을 떨

쳐내기 위해서라도 먼 곳을 꿈꾸고 바라본다. 먼 곳을 동경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을 사람보다 더 이상주의자일 것이다. 이상주의자란 짐승들이 으르렁대는 동물원에서 천국 보기를 포기하지 않는 자다.

로버트 브라우닝은 ‘사람은 반드시 잠을 수 없는 것을 향해 손을 뻗어야 한다’고 노래한다. 현실 저 너머의 환상을 빚는 뇌는 불가능한 것을 꿈꾼다. 우리는 이 궁극의 것을 쥐고 저 먼 곳에 도달하려고 노력한다. 게으른 사람도 근면한 사람도 다들 행복을 꿈꾼다. 하지만 대개는 행복이 무엇인지 딱히 모르고 산다. 나날의 삶이 기적이냐는 대공정에서 벗어치는 낙관적인 감정이 행복이 아닐까? 먹고 사랑하며 기도하는 나날들 속에서 아이들은 저절로 자라나고, 강물은 바다를 향해 흐르고, 계절은 영원히 순환한다. 이게 기적이 아니라면 무어란 말인가!

별 좋은 가을날 나무 그늘 아래 벤치에 앉아 샌드위치를 먹는다. 근처에는 비둘기 몇 마리가 구구거리며 모이를 찾는다. 녹색 짐승 같은 활엽수는 가을로 들어서며 단풍이 든다. 나날은 되풀이하는 같지만 어느 하루도 똑같지는 않다. 우리는 날마다 다른 하루를 맛고, 낱씨의 변화무쌍함과 계절의 순환을 받아들이며 산다.

삶은 기적이다! 이 기적에 기대어 우리는 덧없음과 허무를 넘어서고, 날마다 새로운 날을 맞는다. 가을엔 누구에게라도 지난해보다, 아니 어제보다는 좀 더 나은 사람으로 살아야겠다고 고백하고 싶다.

동화책 ‘할머니가 남긴 선물’을 읽으며

센터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레크리에이션과 노래, 그리고 예배를 하며 뜻깊은 시간을 갖고 있다. 그분들에게 어떤 좋은 이야기를 해 드릴까 고민하는 중에 한 권의 동화책을 발견하게 되었다. 1997년 시공주니어에서 출판한 마거릿 와이즈의 ‘할머니가 남긴 선물’이라는 책이다. 아주 오래 전에 출판된 책이었는데 그 내용이 어린이를 위한 동화책이 아니라 어른을 위한 동화책이라 해도 될 만큼 깊은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서 주간보호센터 어르신들에게 읽어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실감나게 들려드리고 싶어 구연 동화를 하듯 몇 번 읽어 내려가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다.

내용을 잠깐 소개하자면 할머니 돼지와 손녀 돼지가 함께 살고 있었다. 나이가 많은 할머니 돼지는 이제 손녀와 영원히 헤어져야 할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게 되었다. 혼자 살아야 할 손녀를 위하여 다양한 삶의 지혜들을 가르치기 위해 이것저것 함께 하며 마지막 시간들을 보낸다. 그중에서 몇 가지 마음에 와 닿는 것들이 있었는데, 할머니는 손녀가 혼자서도 잘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일을 도와 가며 부담해서 집안 일을 했다. 할머니가 먼지를 털어 내면 손녀는 마룻바닥을 쓸고 할머니가 이불을 개면 손녀는 빨래를 넣고 하면서 나중에 무엇이든지 손녀가 혼자서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할머니의 깊은 뜻이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할머니는 크게 아팠고 함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하게 된다. 할머니는 힘을 내어 일어나서 자기의 삶을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손녀와 함께 도서관에 책을 반납하고, 통장을 해지하

고, 식료품 가게에 가서는 외상값을 갚았다. 그리고 남은 돈을 손녀에게 주면서 “잘 간직했다가 현명하게 쓰거라”라는 말을 남겼다. 손녀와 함께 동네 이국저곳을 다니며 반짝이는 나뭇잎, 수다쟁이들처럼 모여 있는 구름, 파스한 흙냄새를 맡으며 일상에서 그냥 지나쳤던 풍경들을 온몸으로 느끼고 감탄하며 행복해 한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초대해 잔치를 베풀고 손녀가 할머니를 꼭 껴안고 잠들며 이 동화는 끝난다. “돈을 아껴 써라”가 아니라 돈을 현명하게 쓰라니, 참으로 좋은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할머니가 자연을 느끼고 감탄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의 삶이 이렇지도도 착박한 것은 바로 이것, 감탄이 빠져서 그런 것은 아닌가 싶었다. 영화, 드라마, 음악을 들으며 울고 웃으며 감정을 쏟아내는 것도 좋겠지만 구름 한 조각, 작은 풀벌레 소리들의 합창, 가을 잎이 떨어져 내려앉는 모습... 우리는 주변의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냄새를 맡고, 맛을 보면서 느낄 수 있다.

창세기를 읽으며 신자들은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한 것을 신앙고백으로 하면서도 피조물을 보며 진정으로 감탄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간과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세상을 창조한 나를 믿어라’라고 강요하시는 것보다는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며 경이심으로 가득 채우길 바라는 것은 아닐까. 깊어가는 가을에 책도 많이 읽고 오감을 동원하여 자연 만물을 느껴 보기를 바란다. 나뭇잎이 떨어져 바닥에 닿을 때 나는 소리 ‘사각’, 움켜도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저절로 미소 지어지리라 생각한다.

아내

다. 언젠가 딸이 초등학교 다닐 때 발달장애에 대해 전문 강사가 했던 말을 지금도 믿고 있었다. 하긴 믿지 않는다 해도 또 다른 뾰족한 선택이 있을 리가 없었다. 우리 부부는 구역구역 그대까지 버티는 것밖에 달리 도리가 없어 보였다. 하지만 요즘 환경이 좋아져 장애인들의 평균 수명이 훨씬 늘었다. 일반인과 격차가 거의 없어졌다. 결국 딸은 우리 부부가 세상을 떠난 뒤에 혼자 살게 될 가능성이 컸다.

막막한 마음에 식탁에 앉아 술을 한 잔 따랐다. 아내가 옆으로 슬그머니 앉았다. 제대 후 독립한 아들 얘기를 주고받았다. 아들 얘기는 늘 목소리를 죽이며 말해야 한다. 아들 이름만 들어도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르는 딸이 들을까 조심했다. 다음은 시골 친구 얘기로 넘어갔다. 말이 나온 김에 오랜만에 직접 전화했다.

시골이 고향인 사람들은 삶의 공간이 두 군데나 다를 없었다. 고향에서 일어난 일들이 서울의 삶에 늘 동행했다. 나이가 들수록 기쁜 일보다 슬픈 일이 더 많았다. 전화 신호음이 울리는 동안 상상의 날개는 고향을 향해 뻗어 나간다. 섬진강이 길게 흘러내리는 길을 따라 한없이 날아간다. 순천이 가까워지면 오른쪽 길로 방향을 바꾼다. TV에서 본 암자가 나타난다. 암자를 뒤로하고 한참 더 길을 재촉하면 소설 ‘태백산맥’의 고장 벌교가 나온다. 꼬막 맛을 다시며 한참 더 내려간다. 상상의 날개에 힘이 빠질 때쯤 남도의 끝자락 고흥 바다에 닿는다.

시골 친구는 늘 이맘때면 불의의 사고로 죽은 아들 때문에 힘겨워했다. 담배를 끊은 지 삼 년이 되었고 그

의 아내는 암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얘기를 주고받았다. 어느새 창밖 날씨가 훤히 보였다. 비바람이 거셌다. 하루 일에 지친 아내가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혼자 마시는 술맛은 나이가 들수록 미미해졌다. 식탁을 정리하고 방으로 들어가 드러눕는다. 바람이 거센지 창문이 들쭉했다. 눈을 말뚱말뚱 뜨고 누워 있으나 잠은 오지 않았다. 자정이 넘으니 점점 더 바람이 거세지며 창문이 흔들렸다. 갑자기 방문이 열리며 아내가 베개를 든 채 들어왔다.

“나는 혼자 절에서 못 살 것 같아. 바람 소리가 무서워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어.”

내 침대로 파고들었다. 아내는 아픈 후 누가 옆에 자면 깊은 잠을 잘 수 없다. 골필도도 약해졌고 암은 완치되었지만 언제 재발할지 몰랐다. 아내의 모습에서 자주 장모의 모습이 겹쳤다. 비바람은 여전히 창문을 두드리고 나는 잠이 오지 않아 몽롱한 채 누워 있었다. 깜박 잠이 들었나 싶었는데 땀겨리가 허전했다. 손으로 더듬어 보니 아내의 자리가 비어 있었다. 자기 방으로 돌아갔지 싶었다. 잠시 후에 화장실에서 인기척이 나더니 아내가 방으로 들어왔다. 갑자기 창문을 내다 보며 큰 소리로 말했다.

“하따! 별이 참말로 곱네!”

하따? 한밤중에 시골 마당에서 환생한 장모님이 외치는 소리처럼 들렸다. 무슨 일인가 싶어 벌떡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다. 어느새 비바람은 그치고 산등성이 위에 까만 하늘이 드리워졌다. 관악산 정상에서 사당 쪽으로 길게 뻗은 능선 위로 별들이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램나게 걸쳐 있었다.

社說

획일적 교원 감축...농어촌 교육 차질 우려된다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교원 감축 정책을 획일적으로 추진하면서 소규모 학교가 많은 전남 농어촌 교육에 차질이 우려된다.

광주시교육청은 2023학년도에 초등교사 여섯 명을 선별한다. 지난 2014년 300 명을 뽑던 것에 비하면 9년 새 98% 급감한 것이다. 전남도교육청도 초등교사 163명을 뽑는다. 이는 2015학년도 495명에서 67% 감소한 숫자다.

이처럼 ‘교사 임용 절벽’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교육부는 최근 각 시도 교육청에 2023학년도 교원 정원 2차 기배정 인원을 통보했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광주 초·중 등 교원 정원은 전년의 3분의 1로 감소할 것으로 분석된다. 전남도교육청도 초등 교원 50명, 중등 교원은 279명이 줄게 된다. 교사 정원이 급격하게 줄면서 교육대학을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도 크게 늘고 있다. 대학알리미 공식 자료에 따르면 광주교대 생의 중도 탈락율은 2017년 0.5%에서

2021년 2.3%로 네 배 이상 증가했다.

급격한 교원 감축은 농어촌 학교가 많은 전남 교육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실제 전남은 877개에 이르는 전체 초·중·고교 가운데 43.3%(380개)가 학생 수 60명이 채 안 되는 소규모다. 일률적으로 교원을 줄이면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전교조 전남지부가 잇고제부터 교육청 앞에서 교원정원 감축 저지를 위한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 이유다.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는 것은 당연하나 ‘교육의 질’ 확보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수도권 과밀 학교와 인구가 격감하는 전남 같은 농어촌 지역에 획일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교원 감축 정책을 보완하고, 교육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세밀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 차제에 임용 적체가 심화되는 교육대학교의 정원 정책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초강력 레이저 전남 구축, 연구시설 안배를

입자(粒子) 가속기 등 국가 대형 연구시설은 기초과학은 물론 첨단 기술과 산업 발전을 이끄는 핵심 기반이다. 하지만 그동안 중이온·방사광·양성자 가속기 등 국내 시설 대부분은 충청과 영남에 편중됐다. 호남의 발전이 더딘 또 하나의 이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조만간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건립을 위한 공모에 나서기로 하면서 전남도가 이의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존 원형 방사광 가속기보다 1000배 이상 빠른 이 시설은 기초과학뿐만 아니라 응용 연구, 산업 전반에 활용되는 다목적 연구시설이다.

전남도는 지난해부터 유치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위원회를 발족시키는 등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발 빠른 준비에 들어갔다. 오는 2031년까지 9000억 원을 투입해 나주시 빛가람혁신도시 인근 50만㎡의 부지에 세계 최대 규모의 초고출력·고에너지 기반 레이저 연구시설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들도 그제 국

회에서 공동 토론회를 열어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구축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논의하며 힘을 보탤다. 이 자리에는 국내 레이저 관련 학회와 기관들이 참석해 한 목소리로 전남에 구축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남은 2년 전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공모에 도전했지만 안타깝게도 총복에 밀렸다. 이때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제도전환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 2019년 ‘한전공대 설립 기본계획’을 의결하면서 이와 연계한 국가 대형 연구시설 구축을 약속한 바 있다. 나주의 후보지는 혁신도시와 인접한 데다 안전성과 접근성이 뛰어나 최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유치로 전남이 반도체와 소재·부품, 우주·국방 등 첨단 과학기술 역량을 확보해 낙후된 산업 구조를 바꿀 수 있도록 지역의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다. 정부도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대형 연구시설의 권역별 안배를 꾀해야 한다.

無等鼓

다양한 복지 정책이 존재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정부나 지자체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보호 종료 아동’ 정책이다.

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은 만 18세, 즉 ‘보호 종료 아동’이 되면 ‘자립 준비 청년’으로서 시설을 떠나 자립해야 한다. 하지만 강제로 양육시설을 떠난 청년들이 광주는 물론 여러 지역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자립 준비 청년들이 양육시설에서 나올 때 받는 자립 정착금이 지자체마다 약간의 차이

보호 종료

는 있지만 대략 500만 원 전후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현실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와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뉴스들이 줄을 이었다. 급기야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자립 정착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률안이 최근 발의되기도 했다.

법률이 개정되더라도 자립 정착금이 1000만 원을 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500만 원을 더 지원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막을 수 있는 것일까?

최근 지역에서 양육시설 아이들과 일반

가정 아이들이 함께한 행사를 치른 지인의 얘기를 듣고, 문제의 핵심은 돈(지원금)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히 했다. 양육 시설 어린이(초등 1년)가 일반 가정 참가자의 텐트에 들어가 놀면서 벌어진 일이었다. 행사 진행자들은 참가 기증이 불편할까 봐 양육시설 어린이를 텐트에서 데려가려 했지만 어린이는 나오지 않으려고 했고, 다행히 참가 가정 부모들이 함께 놀겠다고 해서 난처한 상황은 종료됐다. 하지만 부모와 같이 온 아이의 퀵보드가 타고

있었던 양육시설 어린이는 기피만 있으면 퀵보드에 올라고, 급기야 아이들 간 소란이 일어났다. 결국 행사 진행자와 보육시설 선생님들이 성탄절에 퀵보드를 사주겠다고 약속하는 등 소동 아닌 소동이 벌어졌다고 한다.

양육시설 어린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의 사랑과 가족 분위기였던 것이다. 나이는 청년이 됐다고 하지만 보호 종료 아동도 사랑과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 돈도 중요하지만 시설을 떠난 청년들을 반갑게 맞아 주는 사회 시스템이 확립돼야 되풀이되는 비극을 막을 수 있다.

/채희중 정치담당 편집국장 chae@

Table with 4 columns: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자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